

보도자료

보도 희망일	제한없음(즉시)
문의	글로벌사회공헌단
	박지이, 전화: 880-2990, 이메일: verapark@snu.ac.kr

배포일: 2022.9.15.(목)

교수사회공헌단 정책보고회 성료

□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단장 여명석, 이하 ‘공헌단’)은 2022년 9월 7일(수) 서울대 우정원 글로벌사회공헌센터(153동)에서 「교수사회공헌단 정책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미래비전포럼 I 「교수사회공헌단 정책보고회」 개최

□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교수사회공헌단'(공동단장 김병기, 조상헌, 이하 '교수사회공헌단')은 2017년 사회공헌교수협의회로 설립된 이후, 2021년 공헌단 내 조직으로 제도화된 이래로, 서울대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제협력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교수사회공헌단은 이번 정책보고회를 통해 그간의 작업을 정리하고 서울대의 공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 정책 제시를 주도한 공과대학 윤제용 교수의 기조 발표에는 질적 국제화와 지식기반 사회공헌의 강화라는 서울대 중장기 발전방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서울대의 사회공헌 거버넌스의 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서울대 내에 공헌활동 및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처' 단위의 신설조직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 권순만 보건대학원 교수의 주도로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 박종규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과 김동호 KOICA 전략경영처장은 성공적인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전문 지식과 헌신성을 갖춘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대가 효과적인 조직구조를 바탕으로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강창우 인문대학장은 새로운 거버넌스 수립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부총장이 공헌 활동 위원회를 주도하는 체제를 제안하였다. 이봉주 전 사회과학대학장은 사회공헌을 국제개발에 한정하지 않고 더 넓은 시야를 견지할 필요성과 함께 '원'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유재준 자연과학대학장은 서울대 학부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지속가능성과 사회공헌성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학제적 제도로써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황준석 공대 교수와 김웅한 의대 교수는 실제 대규모로 진행하였던 국제개발 프로젝트 주도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과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지정토론자였던 정혁 국제대학원 교수는 공헌 거버넌스의 강화가 단지 공헌 활동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의 연구와 교육 모두

를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중심적인 열쇠일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위상의 맥락에서 서울대가 공헌 활동에 있어 역사적 소명감을 갖고 임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 이번 행사에는 오세정 총장을 비롯하여 현장에 26명, 온라인으로 25명의 교수들이 참여하여 서울대의 공헌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국제개발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 공헌단은 이번 교수사회공헌단 정책보고회에 9월 14일(수) 공헌단의 미래비전과 실행전략을 보고하는 ‘미래비전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사회공헌단 행정팀(02-880-299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